

# 장벽 없는 공연 문화 '앞장'

전주시·국립무형유산원, 장애인 대상 무형 유산 공연 가져  
관람석 우선 배정과 수어통역·자막서비스 등 제공 '큰 호응'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답게 평소 문화공연을 즐기기에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과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별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과 함께 장애인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총 4회의 '장애인 대상 초청 관람형(시연형)공연'이 13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에게 균등하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장벽 없는(barrier-free) 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문화 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감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시도로 마련됐다.

이번 장애인 초청 관람형 공연은 지난 5월 4일 '꼭두'의 창작인형극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시

작으로 △6월 1일 중국 김림성 예술단 초청 공연인 '향음' △전통예능의 갈래로 왕 앞에서 추던 '격조' 있고 화려한 '궁중무용'을 거쳐 이날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지전 선정작품인 '남사당 박철치의 <전주유랑기>' 중 '출타기를 제외한 5종목을 선보이는 것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장애인 대상 초청 공연은 매 공연마다 △관람석 우선 배정 △정착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 지원 등 모든 관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매회마다 약 60여명 정도의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장애인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와 유산원은 장애인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오는 9월에도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공연을 한

차례 더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연을 관람한 한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공연은 극히 드물어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훌륭한 공연들을 볼 수 있게 되서 정말 기쁘다"면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관람 할 수 있는 공연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은 보편적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문화생활을 하는데 적잖은 제한이 있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공감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도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게 만든 이번 공연처럼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고, 나누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베르디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라 트라비아타'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다.

## 베르디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정읍 상륙

정읍시예술회관에서 27일 오후 4시 공연

베르디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라 트라비아타'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알렉산더 뒤마 피스의 소설 '동백꽃 아가씨'를 바탕으로 한 '라 트라비아타'는 화려한 볼거리와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라 트라비아타'

는 파리 사교계의 꽃인 비올레타와 젊은 귀족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현대인들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그려냈다.

'라 트라비아타'는 지난해 한국 오페라 70주년 기념작으로 한국과 러시아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도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예술감독인 연출가 장수동을 주축으로 비올레타에 정꽃님, 알프레도에 박기천 등 한국 최상급 출연진과 스텝이 함께해 원작에 충실한 무대 배경과 음악으로 강렬한 앙상블을 이

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객과 공감하는 공연을 위해 자막으로 가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 좌석 1만원이다. 정읍시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공연은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지방극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8월에는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네마 클래식 KOREA'가 공연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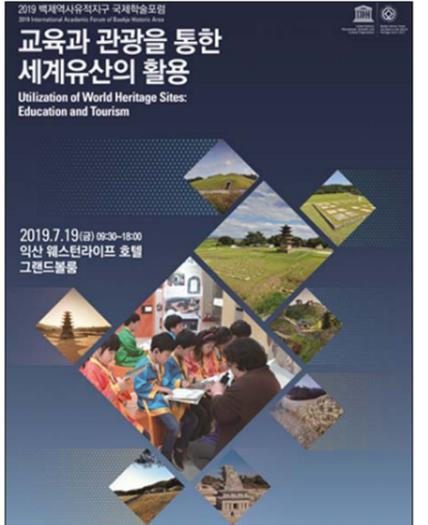
##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포럼 개최...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

(재)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는 오는 19일 익산에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교육과 관광을 통한 세계유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용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발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문화유산 활용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수잔 밀러(Susan Miller)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전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에릭 제루도(Eric Zerrudo) 산토 토마스 대학교 교수의 '필리핀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영향', ▲카타르지나 피오트로프스카(Katarzyna Piotrowska) 폴란드 국립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정책국장의 '세계유산 활용: 폴란드 사례연구',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의 '디지털 시대 문화유산 관리 기관의 대응'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나소영 백제세계유산센터 이사장은 "이번 학술포럼에서 이야기되는 다양한 전략과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센터의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적, 세계유산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관광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그리고 익



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2015년 7월 8일 제39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학술포럼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학술포럼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전북도청,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서 후원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국내·외 축제 전문가들 총 출동!

익산시 18일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개최  
30개 국내 대표축제 경험... 우승자 세계대회 진출

국내·외 축제 전문가들이 총 출동하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IFEA World) 연차 총회와 제13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한국대회가 오는 18일 익산에서 열린다.

올해 세계축제협회 한국총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전국 지자체, 관련 기관 축제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해 우리나라의 축제정책 방향, 익산 서동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스웨덴 코트랜드 중세축제 등 국내·외 축제의 성공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축제 트렌드와 축제 관련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주제로 워크숍과 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축제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 진출할 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내대회로 총 12개 부문에 약 30

개의 국내 지자체 대표축제가 세계 본선 진출을 위해 경합을 벌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최고의 축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세계적인 축제들의 정책 방향과 성공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가 익산서동축제와 같은 지역 대표축제 발전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축제협회(IFEA)는 전 세계 5개 대륙, 50개국 회원국과 5만여 명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의 축제이벤트 단체로 한국 지부는 2007년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창립했다.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가 매년 전 세계 경쟁력 있는 축제를 대상으로 분 이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